전북회화



2001년 통권 제9호
전북회화회 발행

침묵의 세월

하늘 보고 침 뱉으면
내게 떨어진다 하여
응어리진 가슴 안고
살아온 날들이여!
물 먹은 하마는
썩은 속을 토해내도
눈물 어린 병아리만
제 가슴을 치는구나.

하늘 보고 침 뱉으면
내게 떨어진다 하여
텅 빈 하늘 쏘아보며
입에 물은 독 한 모금
흘러가는 구름 따라
두 눈만 끔벅 끔벅
까마귀 우는 골에
나도 꼬 – 옥 찾아가리.

강 일(姜 一)

▷1953년생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졸업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졸업
▷88년 예술계 신인상 수필 당선
▷93년 농민문학 신인상 시 당선
▷전북문인협회, 전북수필문학회, 갈숲문학회 회원
▷현 삼례공업고등학교 교사
▷저서 : 시집(침묵의 세월) 수필집(그대 품 안에서)
갈숲에 이는 바람(공저), 삶의 나루터에서(공저) 외 다수
▷주소 :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1599-19
☎ (063)272-0269 / 011-9641-0269

2001년 통권 제9호

전북회화

제자 : 효봉 여태명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CONTENTS

▶전북회화회 발자취		
▶나의 작업노트	김 란	4
	류명기	5
	류일선	6
	문 순	7
	배기병	8
	서진숙	9
	안순금	10
	이승훈	11
	이우정	12
	이진숙	13
	이철규	14
	이환배	15
	정미현	16
	최병남	17
▶전시리뷰	김승호	18~19
	류명기	20~21
	이철규	22
▶특별기고 - 문화공간안내	편집부	23~24
지구를 색칠하는 페인트공	양귀자	25~26
▶역사와 미술	이동희	27~29
▶한국화에 대하여	이승훈	30~33
▶나의 여행기	이승훈	34
▶읽을 만한 책	편집부	35
▶문화가탐방 - 전북지역 화랑가 안내	편집부	36~37
▶전북회화회 회원 주소록 및 편집후기		38

▶표지작가

이 진 숙



·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졸
· 대학미전 및 전북미술대전 특선 및 입선다수
· 춘향미술대전 입선
· 원묵회전,열린마음전,전북회화회전 등 단체전 다수
· 삶과 일상 그리고 예술에의 초대전
· 굿모닝밀레니엄전 등 다수의 초대전
· 현재:한국미협,원묵회,전북회화회, 전통미술교육연구회원, 완산중학교 교사

전북 회화

전북 회화회는 한국화를 전공하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작가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 되었으며,
전북 회화회지 발간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의 질을 높히고 한국화에 대한 저변확대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전 · 북 · 회 · 화 · 발 · 자 · 취

1990. 3. 13	전북회화회 창립
1990. 5. 31~6. 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1991. 1. 4~5	스케치여행:해남 대흥사
1991. 3. 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 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 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1. 8. 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콘도
	주제:"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
	F.B.Feildman저, 김춘일 역(사회:이철량)
1992. 6. 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2. 1~7	교동의 표정展-얼화랑-주제전
1993. 5. 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3. 8.	하계 스케치여행:군산 개야도
1993. 9. 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3.	제1호 전북회화지 발행(창간호)
1994. 2. 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휴양림)
1994. 6. 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7. 29	하계스케치-동상 수련장
1994. 12. 12~20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전북인물 열전-예루갤러리
1994.	제2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해수욕장
1995. 3. 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전북예술회관)
1995. 3. 18	세미나주제:"우리다운"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 12. 22	파출소그림 걸어주기(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1995.	제3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 25	정기모임
1996. 6. 28~7. 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6. 12. 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	제4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2. 12	정기총회
1997. 2. 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1997. 4. 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초청강사:이철량 교수님
1997. 6. 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 28	전북 회화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 28	전북 회화회展, 제5호 전북 회화지 발행
1997. 12.	정기총회 및 결산
1998. 2.	동계야외 스케치-덕유산, 운주
1998. 4.	정기모임-하계 도예 캠프 계획 수립
1998. 6.	정기모임-정기 전북회화회전 계획 논의
1998. 8.	하계 도예 캠프-기간:8.6~8.8 장소:백제도예
	테마를 위한 마이산 기행-기간:8.8
	안내:진안 문화원장 1998. 10. 정기모임 1998. 11. 18
	전북 회화회전 및 제6호 전북 회화지 발간
1999. 1. 14~1. 16	도예캠프(백제예술대학 도예과)
1999. 1. 14	초청 세미나(주제:21C 한국화의 전망 및 기대와 역할
	초청강사:이철량 교수
1999. 1. 15	도예초청특강
	(주제 "도예의 재료학에 대하여" 초청강사:심재천 교수
1999. 3. 19~3. 31	백제대학 기획 초대전
	-도예의 숨결을 찾아서 / 백제대학 백암미술관
1999. 5.	정기모임-한국정신과의 교류전 논의
1999. 8.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1999. 10.	정기모임-전북회화회 10주년 기획논의
1999. 11.~12.	전북회화회 편집 모임, 제7호 전북회화지 발간
1999. 12. 17~12. 23	전북회화회 10주년
	-1999 vs 2000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특별기획(그림이 있는 찻상 풍경전)
2000. 5. 18	정기모임
2000. 6. 22	정기모임-신입회원 김승호
2000. 8. 18	테마여행-고창 고인돌(이기화)
2000. 8. 3~18	포스코초대전(포스코문화 갤러리)
2000. 9. 16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2000. 11. 8~14	전북회화회전(민촌)
2000. 12. 15	정기모임-신입회원논의
2001. 1. 11~12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신입회원:김란, 류명기)
	테마기행(실상사, 흥부마을)
2001. 4. 10	정기모임-홈페이지제작 및 교류전 논의
2001. 9. 14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회지 논의
2001. 11. 19~11. 25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부산)
2001. 11. 30~12. 6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
	(전북대 삼성문화관)

전북회화회전 및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

전북회화회	오늘 그리고 내일
김 란	류회민
류명기	
류일선	박재완
문 순	
방정엽	윤춘근
배기병	
서진숙	
안순금	강민정
이승훈	
이우정	박연욱
이진숙	
이철규	황금엽
이환배	
정미현	
최병남	이순행

- **전시일정 및 장소 :**
  - · 2001. 11. 19(월)~11. 25(일) 부산시 금정회관 대전시실
  - · 2001. 11. 30(금)~12. 6(목) 전북대 삼성문화관 1전시실
- **초대일시 : 2001. 11. 30 오후 17:00**

김 란



묵의 세계에서 헤엄쳐 다니는 자유로움을.....

나는 화조화를 그린다. 소재는 분명 "화조"의 대상을 한다.
화조란 단순히 꽃과 새의 주제를 뛰어넘는 넓은 의미의 "소자연"이다. 나는 이 소재들을 가지고 조형미를 표현하고자 한다.
관념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이 더 진한 전통 표현 소재일지언정 나는 분명 묵의 세계에서 헤엄쳐 다니는 자유로움을 맛보고 있다.
비록 어렵고 힘겨울지언정 아직은 젊고 무한한 표현의 세계가 나를 기다린다. 또다른 나의 정립된 세계를 위해 오늘도 나의 그림세계는 차근차근 성실하게 답습해 나가는 전통의 소재를 기초로 한다.
묵을 단순히 기법과 표현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붓자체로의 자유로움에 빠져들고 싶다. 현대인도 선인들이 표현했던 그 감성대로 지금을 표현했노라고.....
언젠가는 이 전통의 힘이 우리의 강한 힘으로 자리잡을 그때까지 묵묵히 묵의 향기를 맡을 각오가 되어 있다.

- 김 란 - 작가노트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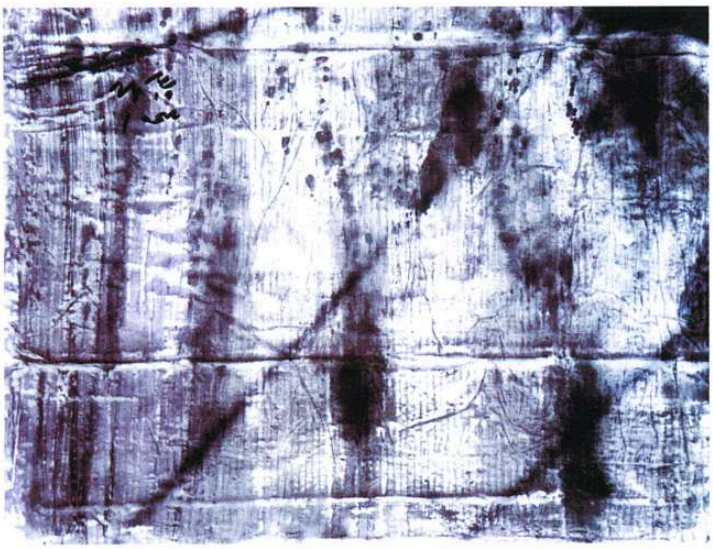
류 명 기



흙무더기에 걸려 넘어지는 일은 숱하고.....

사람이 산에 걸려 넘어지는 일은 없지만,
작은 흙무더기에 걸려 넘어지는 일은 숱하고, 멀리있는 별들만을 바라보며 걷다보면
발밑의 수렁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긴고 하시겠지만 제가 요즘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만이 의식되고 별만이 보이는 나날들에 문뜩 문뜩 나타나는 흙무더기,
깊은 수렁을 또 한번 피해보고자 하는 간사한 마음이 없지않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태부족인 역량탓에 주변을 보살피기는 아직 힘에 겨워도,
내 평생의 美에서만큼은 살펴 그리는데 있어 충실하고,
지극한 즐거움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 주위사람들이 모두 저보다 잘나 보이는 날들이 많겠지만,
그런 날은 어느 詩人의 말처럼 꽃 한송이 사들고 집에 가
아내와 함께 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입니다.

류 일 선



水墨세계의 한국혼

류일선의 수묵화 해독하기

중국 사람의 각도에서 한국화가 류일선의 작품을 보면 작품표현방식이 간결하여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류일선은 호왕륜화, 리씽젠, 지아여우푸 선생님을 모시고 "米氏云山"의 화법을 이어받았고 그림은 필과묵의 신비로운 조화를 풍긴다. 스승님의 말씀대로 그의 황산을 주제로 창작한 작품들에서 보여주듯이 중국화의 기법이 그의 그림에 대한 영향력을 볼 수 있다. 작품의 세련되고 강건한 느낌을 필과묵으로 자유자재 표현하듯이 그의 탄탄한 繪畵功底를 말해준다. 초년 서양화에서 다진 엄연한 기법이 훗날 한국화를 창작하는데 기초가 된 것이다.

그는 스케치를 매우 중시한다. 짧은 몇 년간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名山大川을 돌면서 기엄한 장강, 유유한 실개천, 농가정원, 창밖의 국화들은 그에게 不斷히 창작욕망을 起하였다. 모든 예술가들이 그랬듯이 대자연을 사랑하는 순박하고 순수한 마음을 그의 작품 구석구석에서 느낄 수 있다.

그는 스케치북을 항상 들고 다닌다. 山水草木들로 받은 靈感을 항상 기록한다는 것이다. 그의 작품은 風格多變하다. 한국예술가의 각도에서 중국예술에 대한 진수를 발견하고 소화한다. 그는 대량의 중국 古今書理, 書論 탐독하였으며 老美學사상이 그의 미학관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동양예술모체인 중국예술은 그에게 무한한 예술발전의 공간이 되어주었다. 예술에는 민족과 국경이 없듯이 문화배경의 차이는 오히려 유일선에게 더욱 廣闊하고 敏한 예술감각의 源泉이 되였다. 그는 한국예술과 중국예술은 정신적 본질은 相通하다고 본다. 다만 표현방식에 있어서 다를뿐이다. 중국예술풍부다변한 표현방식은 그에게 더 많은 수묵표현수법을 배우게 하였다.

류일선은 예술상에서 줄곧 멈추지 않고 深求하여 왔다 자신을 초월하고 선배님들을 초월하려고 줄기차게 심열을 기울이고 있다. 그의 近期작품은 "經營位置" 균형과 기험한 전통模式이 아니다. 그의 작품은 전통적 의미에서 볼 때 不完整성과 不可性을 보여준다. 예전의 질서정연한 논리배치에서 자유스러워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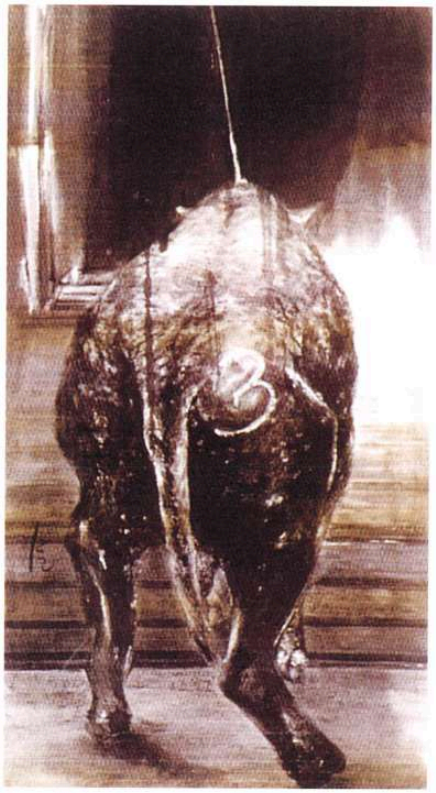
류일선은 자신의 예술언어를 점점 간단히 하고 있다. 작품중의 점선과 墨益은 점점 순수하고 墨氣의 처리에 있어서 점점 개인의 독특한 風格을 만들어 가고 있다. 류일선의 작품은 기법을 떠나서 점점 溫한 大氣를 띤다. 그의 작품의 특수성은 그림을 통해서 볼수 있듯이 작가의 진지한 정신세계와 예술에 대한 갈망이다.

그의 작품은 그의 영혼의 안식처이기도 하고 雪靈府의 天然良所이기도 하다. 유일선의 산수 화조는 자연에 대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가 우주생명에 대한 심각한 체험이기도 한 것이다.

그의 예술세계의 신조목표는 참의 철학과 같이 "정회관도" 目擊道存"이다. 그의 작품 또한 자아생명을 초월하고자 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石濤가 말했듯이 그는 산천임목간에 있어서도 "정신 또한 于山川林木之外"의 경지다. 우주終極과 생명의 然相合을 바란다.

– 2001년 盛夏의 서안에서 –君玲(미술평론가) –

문 순



역사는 강이 되고 산이 되어도 기필코 살아서.....

어린시절, 문득 문득 스치며 보았던 소의 모습들을 참 좋아하였다. 특별한 이유나 까닭없이 무턱대고 좋았었던 소의 눈망울과 꿀정, 그리고 음-메! 하며 뿜어져 내는 소 울음소리가 참 좋았었다. 흔한 강아지들 소리와는 다르게 그 소리의 애잔함이 참 좋았었는지...

어느새부터 나는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안기에 쏠려있었다.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세계 어느곳에서나 저질러지는 만행-부녀자들 겁탈... 그러나 이건 아니었다. 군대의 조직화된, 치밀하게 계산된 범죄였다. 전쟁안에서 간간히 저질러진 만행과는 다른 악랄한 동원이었다. 초경도 경험하지 못한 조선의 어린 여자아이들이 학교를 파하고 돌아오는 길에 끌려가고, 엄마를 도와 나물을 캐다가 끌려간 세월이었다.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퇴각할 때는 산속으로 끌고가 일렬로 세운 뒤 대검으로 목덜미를 내려쳐 죽였던 일본군들. 그 목에서 솟구쳐 나오는 피에 놀라 기절한 두명의 조선위안부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증언한 오늘의 살아있는 슬픔의 역사가 나를 전율케 하였다.

소, 그리고 이땅의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역사가 나의 그림속에는 살아 증언하며 고발하기를 원한다. 은유적으로 절규하며 분노하는 조선 소의 눈매와 역동적인 텃치속에서 그분들의 억울함을 항변하기 원한다. 나도 조선의 여자이며 조선의 할머니이기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역사는 강이 되고 산이 되어도 기필코 살아서 증언하고 있지 않은가.

배 기 병



인정사정 볼것없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이틀이라는 시간 여유를 갖게 되었다.
어떻게 보낼까.
아내하고 같이 여행을 갈까.
아내는 제주도를 가잔다.
거기는 너무 멀어서 곤란하지.
그러면 곰소를 갑시다.
곰소가서 뭐하게.
바다도 보고 곰소는 생선이 싸니까 회나 실컷 먹고 옵시다.
이 사람이 요즘 콜레라 몰라.
우리 부부는 얼굴만 마주 바라 보았다.
연휴 첫날.
아침에 전화가 왔다.
아내한테 걸려온 전화였다.
이틀이라는 연휴가 아내한테도 흥분된 시간이었나 보다.
여행을 가자 하면서도 가까운 사람들한테 수다를 떨었나 보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통장 아주머니 한테서 고스톱이나 치자고 온 전화였다.
나 어떻게 해?
"가서 놀다 와."
고스톱은 자금이 든든해야 잘된대. 지갑을 털어 3만 오천원을 아내 손에 쥐어 주었다.
아내는 고스톱 치러가고 나는 TV 리모콘을 장난삼아 놀다가 자연스럽게 비디오 가게를 향했다.
인정사정 볼것 없다.
박중훈 주연의 악발이 강력계 형사가 주인공인 영화다.
어~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화가 있었네.
헐리우드 영화에 길들여져 있던 나에게는 놀라운 발견이었다.
나름대로 유머도 있고 건장함도 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 피멍이 들어있고 입술은 터져 있다.
그는 반신창이가 되면서도 자기의 직업을 즐기고 있는 듯 보였다.
미쳤다. 미쳐도 악날하게 미쳤다.
그런데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이 부러웠다.
자기 일에 그토록 충실하게 미칠 수 있다는게 너무도 부러웠다.
그래 나도 미쳐보자.
후회 없도록 미쳐보자.
오늘! 내일까지는 놀고, 쉬고 모레부터 미쳐보자....

서 진 숙



당신이 있어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어 마음이 약해진 탓인지 주님을 의지하는 당신들의 모습이 있어 좋습니다.

때로는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나무라듯 뭐라 하여도 느긋이 웃어 보이는

당신들의 주름진 모습이 있어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신들이 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어 좋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몰라도 당신들이 있어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안 순 금



신비롭고 무한한 먹빛.....

얼마전에 도색을 다시 한 2차선의 도로가 겨울을 재촉하는 비에 젖어 무척 깨끗하고 화사해 보인다.

흑(黑). 어린시절 무서움과 어두운 공포가 연상되던 무겁고 불투명하게만 느껴지던 검정색. 그 검정색이 어느새 투명한 빛을 내는 맑은 색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 생각해 보니 벌써 15년째 먹(墨)을 접하고 있다. 지금은 얇고 투명한 화선지를 대할 때나, 가볍고 깨끗한 종이를 만질 때면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나는 농묵(濃墨)의 진한 먹 보다는 담묵(淡墨)의 투명한 느낌이 좋다.

그 투명한 먹색을 담은 붓자국이 화선지위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 어느새 혼자 뿌듯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먹 작업을 해 오면서 순간 순간 스쳐 가는 많은 느낌이 있었지만, 가장 큰 감동은 그 투명한 먹빛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신비롭고 무한한 먹빛.

단지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의 먹빛이 아닌, 아직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또 다른 먹의 느낌이 있을 것이다. 그 또다른 먹빛(먹의 느낌)을 알기 위해 나는 또 몇 년의 시간을 보내면 될까?

이 승 훈



정 하나로

전남 운주사(雲住寺)는 흔히 볼 수 있는 절이 아니다. 탑의 모형도 여러가지 이형이며, 그 탑의 무늬도 기하학적인 무늬로 된 점 등이 이채롭다. 운주사 구층석탑은 보물 제796호. 높이 10.7m. 넓은 자연석을 놓아, 이를 하층 지대석 겸 기단석으로 삼고, 그 위에 상층 기단받침을 3단으로 새긴 다음, 상층기단 겸 탑신을 올려놓아 9층까지 이루었다.

초층의 탑신을 제외한 각 층 탑신 사면에는 능형(菱形)을 양각하여, 십자형 꽃무늬를 조각하고 옥개석 밑면 역시 사선문양을 양각하였다. 상륜에는 노반(露盤)이 아닌 옥개형 석재를 올려놓았고, 그 위로는 보주(寶珠)를 생략하였다. 원형다층석탑은 이중 기단 위에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 기대석을 세우고 기대석 바로 위에 앙련화(仰蓮花)를 상징한 원형의 옥개석(屋蓋石)을 얹었다. 그 위에는 짤막짤막한 원형의 탑신에 복판을 상형화한, 원형 옥개석을 차례로 얹어 6층탑을 이루었다. 상륜(相輪)에 보륜(寶輪) · 보주(寶珠)가 전혀 없는, 흡사 버섯 모양의 석탑으로, 고려의 특색이 있는 희귀한 탑이다.

불상들도 장승과 흡사하여 들길에 세워져 있으며 어떤 불상은 서로 기대고 있는 점도 발견되며 와불도 조성되어 있다. 정치적이던 사회여건이던 간에 그 생김새를 보면 정이 풋풋하게 살아 있으며 화엄의 절정 모습을 서민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이러한 서민의 긴 정서를 작품으로 풀어 내보고자 하였다.

이 우 정



소리없는 바람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흠뻑 들여마신 낙엽들은
소리없는 바람에 몸짓을 떨군다.
메말라가는 땅들은
물든잎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 갈라지는 피부를 감싸안고 싶겠지만
낙엽이 떨어지면 더욱 타들어 갈게 분명하다.

하늘은 무힘히도 맑고 높구나!
간밤에 내눈에 별침을 뿌리더니 따가움에 목덜미로 짠물을
들이키게 했던... 가슴을 적시게 ... 움추리게 하더니 ...

그래도...

이 진 숙



기다림이 되어서.....

백건우가 연주하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은 때론 나를 흥분시키고, 때로는 슬프게 한다.
특히 영화 '샤인' 의 장면이 떠오를 때는 더더욱 가슴이 아린다.
그런 이들에 비하면 내 붓끝이 얼마나 무딘가하고 자책하게 된다.

오늘 아침에 작업실을 정리했다. 먼지도 털고 바닥도 쓸고 작업대도 옮겼다.
손톱은 부서지고 허리가 아프게 치우고 나서.....
커피포트에 물을 끓였다.
흐린 날씨 탓에 커피 향이 온 방안에 가득 퍼졌다.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갈았다.
이번에는 그윽한 먹 향으로 또 한번 온 방이 들떠 있다.
한참을 갈아 만든 먹물을 붓에 묻혀 작업을 시작했다.
주글거리는 해바라기가 붓 끝에서 천천히 천천히 나온다.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씩 나온다.
내 인생의 화두인 '기다림' 이 되어서....
반백을 막 넘긴 나의 기다림은 무엇일까.
나에게 반백이 더 주어지는 행운이 있다면 또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누군가 갓길이 없는 인생을 사십이라고 했던가.
그러면 오십은 어떤 인생일까.....

이 철 규







채색과 수묵 그리고 초상화

1. 채색과 수묵의 이분법적 표현

각각의 화면에 채색작품과 수묵작품을 제작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이질적인 것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채색은 동적인 것, 형식, 장식적, 입체적인 것, 현대 등이라면 수묵은 정적인 것, 내용, 정신적, 평면적인 것, 과거 등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2. 전통 초상화 재현

최근 작업은 한국 전통초상화 작업을 하고 있다. 전신사조(傳神寫照)의 격에 들어맞는 인물의 표현법을 나름대로 문헌을 통해 연구, 정리하여 초상화 작업을 하였다. 특히 옛 조선왕조의 영정을 그리는 방식(어용화사들이 그리는 방식 – 背彩法)을 최대한 사용하였으며, 인물의 표현은 현대적인 명암법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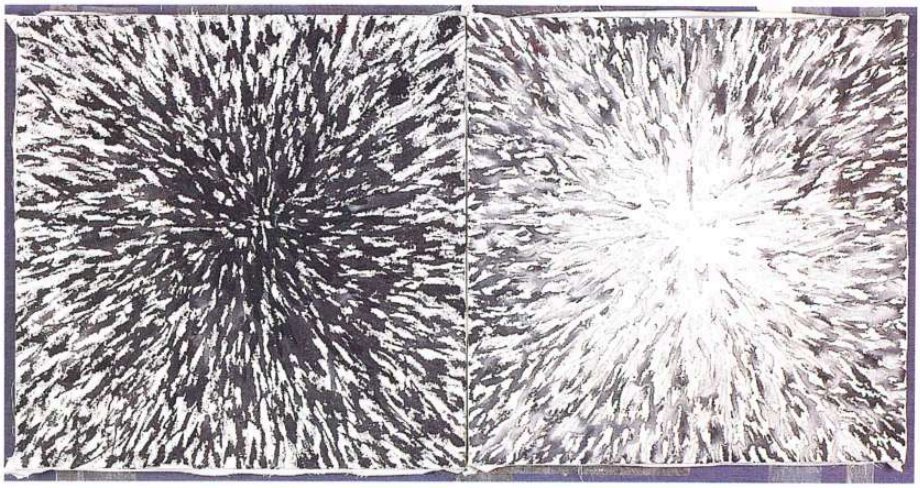
이 환 배



외로움에 지쳐 쉴 곳을 찾는 그런 존재

사람과 사람사이
자연과 사람사이
전생과 이승사이
이상과 현실사이를
작업을 통해 교감을 느껴본다
우리의 전생에는
도시의 한모퉁이에서 서성이는
들개와 고양이처럼 이리저리 먹이를 찾아
방황하는 뚜렷이 갈곳없는 방랑자.
외로움에 지쳐 쉴곳을 찾는 그런 존재
인간은 혼자서는 불완전한 물질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린다.

정 미 현



뭉치는 존재가 있으면 흩어져야 하는 이유가 따르고.....

그림을 그리려함과 그리지 않음이 하나인데.....
문득문득 화두처럼 그런 생각에 빠져든다.

붓을 들어서, 墨의 존재와 그 존재 속에 담긴 사유를 얻고자 하면, 그것들이 오히려 멀어져 가는 힘겨루기가 계속된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그 힘겨루기에 도전하곤 한다.
그림으로 행하려는 행하려는 自我와 墨筆이 하나되어 어우러지고자 하면 그만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루어짐이 있으면 이윽고 다시 허물어져야 하고, 뭉치는 존재가 있으면 흩어져야 하는 이유가 따르고.....
어떤 것을 간절히 취하고자 할 때, 그만큼 잃어야만 하는 허망도 따르기 마련인 듯 싶다.
사람이 그러하니 만물이 그러하고, 우주의 섭리가 그러하지 않겠는가.

그 모든 것이 하나임을 잊은 채 헛갈리며 뛰어든다.
돌아앉아 보니, 내 뒤에 있음을 망각한 채.

최 병 남



끊임없이 유동하는 정 · 반 · 합(正 · 反 · 合)의 세계

하나의 미술작품을 앞에 두고 볼 때 우리들에게 우선 필요한 눈은 확실하고 아는 것만을 좋아하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이러한 확실함과 아는 것을 무(無)로 돌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상상해서 재미있고 의미있게 보려는 작가의 눈이다. 따라서 이전에 우리가 알았던 대상에 대한 인식을 모두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와 이미지를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작가는 경험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을 통해서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경험의 연속이다. 이러한 경험은 순간 순간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나의 경험이 무언가 평화롭고 강렬하게 길들여진, 그러면서도 기묘한 것으로 재생되는데 작가는 어떤일을 하는가. 경험을 세상 사람들에게 흥미있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예술가는 어떤일을 하는가. 실제적이며 본능적인 충동에서 오는 일상적인 경험은 정처없고 죽은 것이다. 특별한 유혹과 즐거움이 되는 우리들의 경험속에서 예술이 하는 역할로 작가는 경험에 생기를 주어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일이다.

한폭의 회화에 표현되어 있는 대상들은 인간감정의 보고와 결부되어 있다는 입장에서 볼 때 존재하면서 인식되어 경험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은 융합과 분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융합과 분리의 상황은 나의 작업에 있어서 하나의 영원한 동기이며 주제이다.

우리가 존재하면서 느끼는 상반된 개념들은 나의 작업공간에서 무수히 화합하고 분열하며 또다른 의미의 평정을 꾀하는 것이다.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등 반의적인 개념들이 결국은 화면속에서 일체된 상황으로 매듭지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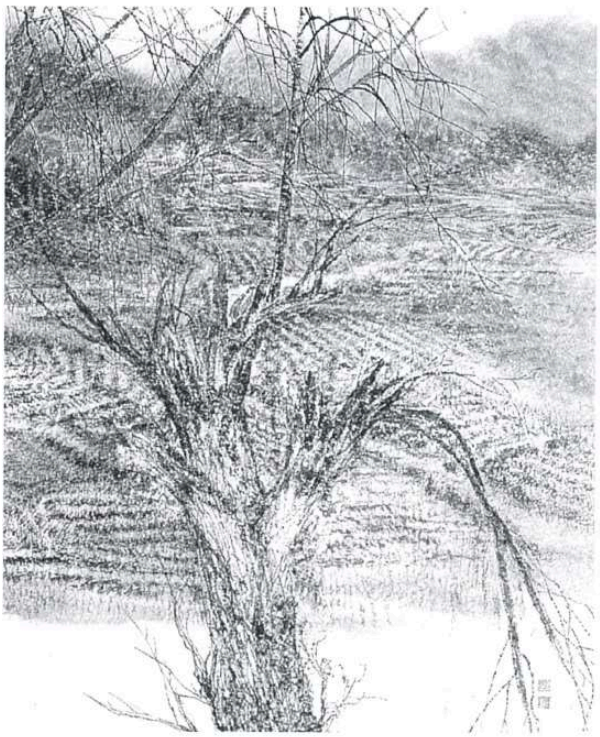
따라서 나의 작업은 선택에 의한 경험에 의해 융합과 분리를 혹은 화합과 분열을 되풀이 하는 그리하여 끊임없이 유동하는 정 · 반 · 합(正 · 反 · 合)의 세계인 것이다. 이러한 정 · 반 · 합의 세계를 통해서 화면속에서 회화적인 평정을 꾀하고자 한다.

예술이란 지혜의 별명이다. 그것은 지금 우리들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개개의 작품속이나 미적인 즐거움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 속에서 훌륭하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질서가 있는 세계에 있어서도 인간생활 전체에 관련되는 듯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모든 예술은 많건 적건간에 어떤 형태로든 인생을 해석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반복들이 보다 더 진정한 의미의 화합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김승호 수묵전

일시 : 2001. 7. 20 – 7. 26
장소 : 전북예술회관 5전시실



2001년 7월에 ... 김승호

80년대 후반부터 탈 장르라는 바람이 한국화단에 불기 시작하면서 많은 젊은 작가들이 전통재료인 모필(毛筆)과 수묵(水墨)사용을 진부한 것으로 시대에 뒤 처지는 것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재료, 새로운 조형성 탐구라는 미명아래 아래 국적 불명의 작품을 양산해 내고 있다. 이에 염려를 더하는 것은 서양적 사고에 따른 다양한 재료 사용으로 인해 서양화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한국화가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필과 묵을 일종의 신념으로 생각하며 꾸준하게 수묵작품을 발표해 오고 있는 김승호는 한국화가 지니는 재료(모필, 먹 등)의 특이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많지 않은 작가중의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화의 전통재료를 사용하면서 전통의 답습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한국화의 자생성과 정체성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작가인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그는 전북화단에서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발전 가능성을 일부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진 문화공간에서 지원하는 청년 작가 초대전에 선정 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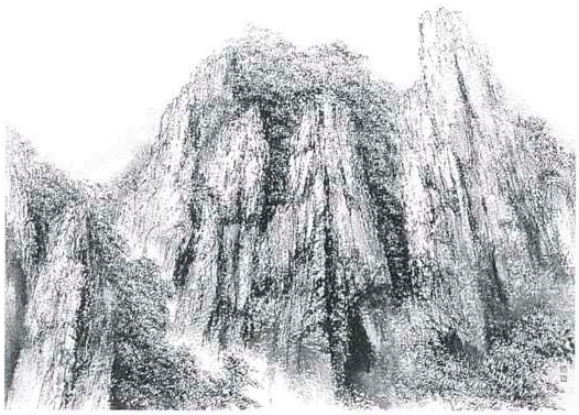
이번 개인전 작품에 나타나는 개념은 구상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순수 먹으로의 회귀로 설정하여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 두 번째 개인전까지 간간히 보여주었던 색채사용은 절제되었으며 활달한 필력은 좀 더 치밀하고 정성이 담긴 운필(運筆)로 변모하였다. 이는 젊은 작가들이 단순히 먹으로 접근 과정에서 그 번짐과 스밈, 무한히 확대되면서 수축하는 공간의 변화 등 인위적으로 통제 할 수 없는 먹이라는 재료의 특수성을 추상성이라는 좀더 자유스러운 작업에 대부분 임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의 구상적 표현은 신선한 자극제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붓질과 먹을 다루는 기술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2000년도 3회 개인전에서 보여주었던 律-수묵의 노래, 숨쉬는 대지 시리즈는 간략한 선(線)과 발묵(潑墨)의 효과를 사용하여 묵(墨)으로만 향하려는 그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의 서문에서도 보여주듯 – 지(紙)필(筆)묵(墨)만 가지고 하자! 욕심 내기보다는 열심히 그린다는 데 의미를 두자! 자연의 생명력을 먹(墨)으로 전달하고 싶다! 라는 독백같이 이번 개인전에서도 대자연의 생명력을 묵이라는 재료를 빌어 묵상(墨象)이 수묵의 재료와 정신합일(精神合一)된 경지에서 머리에 떠오르는 형상(특히 자연경관)을 일종의 스케치나 사고없이 순간적으로, 즉발적으로 화면에 표현하여 나타나는 형상을 의미한다. – 김승호의 이러한 묵상의 세계는 작품상으로 일정한 테마를 설정하여 시리즈를 형성하고 있지만 방법적 표현력은 붓과 먹에 대한 남다른 깊은 이해와 기술적 숙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중국의 명말 청초 위대한 화가이자 화론가인 석도(石濤)는 – 먹이 붓을 적시는 데에는 그 영험스러움이 중요하며, 붓이 먹을 움직이는 데는 그 신묘함이 중요하다. 먹이란 화가가 기나긴 수련을 축적하여 몽매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영험스러울 수 없으며 붓이란 화가 자신의 살아 생동하는 체험의 축적 없이는 신묘할 수 없는 것이다. – 라 하였듯이 김승호 만의 체험과 수련에서 붓과 먹이 하나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서양화에서는 색(色)에 의해 선(線)이 없어지면 결국은 면(面)만 남으며, 동양화는 선(線)에 의해서 색(色)이 없어지며 결국은 묵(墨)만이 남는다고 하였다. 청록산수화로 시작하였던 그의 작품세계는 이번 개인전을 통하여 색이 없어지면서 그 색을 선(線)으로 대신하고 있다. 선은 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볼 때 아니 자신의 세계를 갖게 된다고 볼 때 결국 묵만 존재하는 묵상의 세계로 가고 있는 것이다. 동양화의 발전이 색(色)-선(線)-묵(墨)의 과정을 걸쳐 필연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의미에서도 그도 이러한 과정을 걷고 있는 것이다.

대지가 긴 호흡을 하는 것처럼 숨을 쉬는 느낌을 자아내게 한다. 이러한 느낌은 작가 본인이 마치 그림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에의 끊없는 몰입을 지향하고 있다. - 동양화를 사의(寫意) 예술이라 하는 것도 대상의 충실한 표현보다는 그리는 사람의 심상(心象)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자연에의 귀의로 귀착되기 때문인 것이다. - 다시 말하자면 자연의 이미지를 심경(心境)의 세계에서 걸러낸 심상(心象)의 미(美)를 묵으로 표현하는 묵상의 세계를 그는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작품 '그리운 길' 시리즈에서도 이러한 색-선-묵 과정을 볼 수 있다. 온통 묵으로 자연과 하나됨을 표현하고 있다. 운필(運筆)과 묵(墨)의 사용은 요철지(凹凸紙)와 함께 더 한층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전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적당한 소나무 숲을 가진 야산과 붉은 황토밭, 들 그 사이로 올망졸망하게 나있는 길들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평상시 그가 보아왔던 풍경을 충실한 재현보다는 그의 심경(心境)에서 노니는 풍경으로 한번쯤 걸러내어 그 본질만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다. 요철지 표면을 페이퍼(연마지)로 문질러 군데군데 보이는 흰 부분을 묵이 사용된 부분과 절묘하게 조화되어



류명기 한국화 개인전

일시 : 2001. 4. 27 – 5. 3
장소 : 전북예술회관 2층 6실



어느 개명한 선지식인이라면 이렇게 썼겠지요.

"자, 이제부터 제 그림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정도로요.

하지만, 그 마음이 내 마음같아 저 또한 이야기 始初를 이렇게 멋없이 꺼내는 것은 이왕에 유명한 그림이나 전시를 보아 두었던 보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요즈음 日氣가 어쩌느니 저쩌느니 하고 제대로 받은양 서간체 교육문을 써먹기도 뭐하고, 더더구나 붓가는대로의 두서없는 작업을 顯玄한 顯學의 어휘잇기로 심오하고 廣大한 지경에까지 끌어 올리기는 더욱 낯 간지러우니 참말로 그림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광활한 빈 여백이 원망입니다.

그래서 곰곰한 長考끝에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왜 그리는 일이 즐거운가' 하는 질문에 대한 熟考에서부터 이야기를 잡도리할까 합니다. 지난 어느때라도 제가 그림그리는 일로써 평생의 業을 삼으리라고는 생각했던 바가 없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지하 작업실을 轉轉한 지도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름장마 한철을 습기와 곰팡이를 상대로 애면글면하는 지하 작업실 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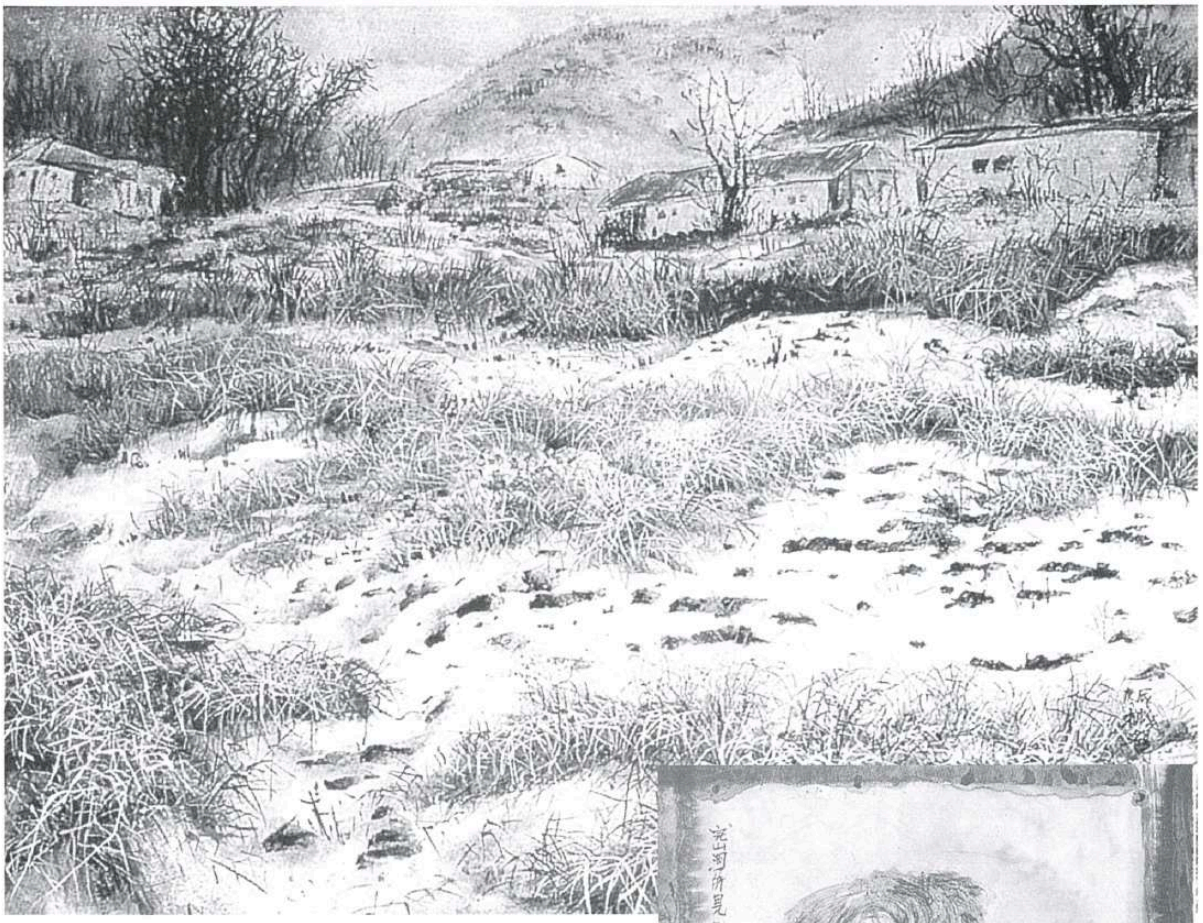
하지만 그 또한 福된 즐거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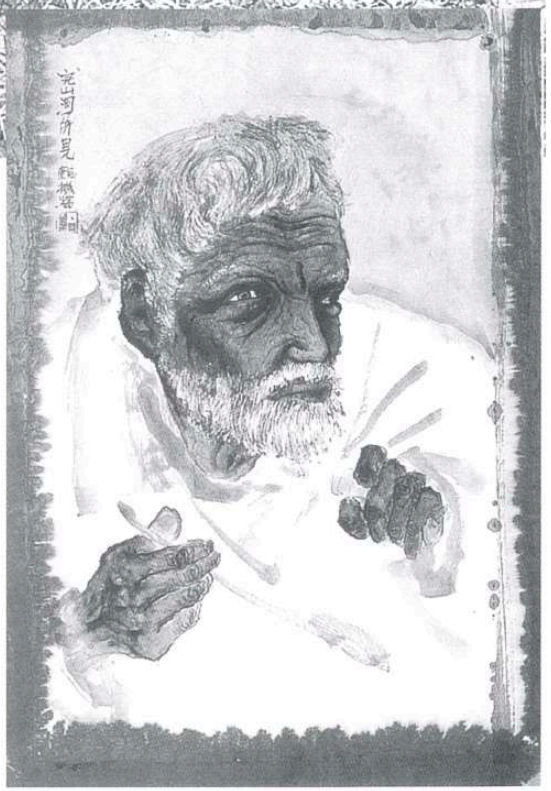
그림을 그리다 보면 수도시설이 없는 관계로 물을 일주일 가까이 갈지 못하기도 하고, 한 겨울 새벽녘에 난로 기름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림 한점을 중간 붓 하나로 완성을 합니다.

이 얼마나 지극히도 즐거운 忘我입니까?

그 즐거움은 곧 제 그림의 대상을 살핌이 제 자신의 그것에 우선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데고 산이 있고, 그 산을 위대해지게 만드는 나무가 있고, 그 나무들을 정겹게 하는 작은 오솔길이 있습니다. 강이 있고, 그 강을 풍요롭게 하는 우거진 수풀이 있고, 그 수풀을 애잔하게 하는 빈 둥지가 있습니다.

또, 둘러보면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애타게 하는 사연과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대상들에서 너무나도 고마운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살핌이 아직도 너무나 미비하고 속되며, 부족한 탓에 군화신고 발바닥 긁는 식으로 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연민이 떠나지 않음은 어쩐 일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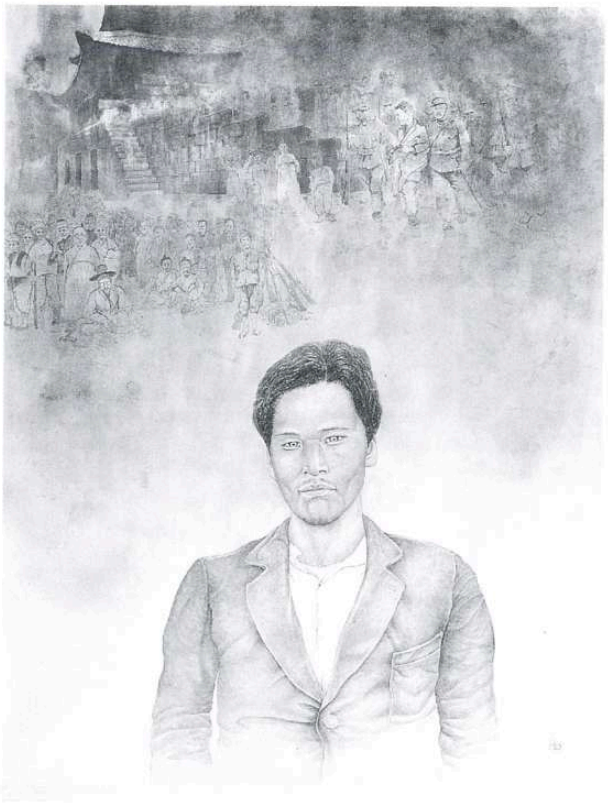
사람이 산에 걸려 넘어지는 일은 없지만, 작은 흙무더기에 걸려 넘어지는 일은 숱하고, 멀리있는 별들만을 바라보며 걷다보면 발밑의 수렁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긴고 하시겠지만 제가 요즘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만이 의식되고 별만이 보이는 나날들에 문뜩 문뜩 나타나는 흙무더기, 깊은 수렁을 금번 개인전으로 또 한번 피해보고자 하는 간사한 마음이 없지않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태부족인 역량탓에 주변을 보살피기는 아직 힘에 겨워도, 내 평생의 美에서만큼은 살펴 그리는데 있어 충실하고, 지극한 즐거움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 주위사람들이 모두 저보다 잘나 보이는 날들이 많겠지요만, 그런 날은 어느 詩人의 말처럼 꽃 한송이 사들고 집에 가 아내와 함께 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철규 개인전

전신사조(傳神寫照)의 구현과 계승



손청문(미술평론, 미학박사)

수묵화와 채색화에 있어서 탁월한 기량을 과시해 온 지역의 대표적인 중견작가인 한국화가 이철규가 왠만한 역량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초상화 작품들로 아홉 번째 개인전을 맞게 되었다. 전시작들은 크게 전통적인 초상화 양식의 기본 모랄에서 벗어나지 않는 화풍과 필묵의 운치가 유독 돋보이는 독창적이면서도 신선한 분위기의 수묵 인물화로 대별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초상화의 미학이 사실(寫實)과 전신(傳神)의 구현 여부에 있음을 전제로 할 때 작가는 배채(背彩) 기법을 통하여 선조들의 사실주의 정신의 맥을 고수하고 있음은 물론 음영법이나 감필법, 선염법 등 자유자재한 필묵의 운용과 독자적인 공간 활용방식을 구사하면서 인물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현대성 사출의 묘에 심혈을 기울인 듯하다.

그같은 노력의 흔적은 외향과 내면에 있어서 대상인물과 화면형상과의 동일성 체현을 기법적으로 의식할수록 작품의 예술적 심도가 삭감될 수 있다는 초상화에 대한 세간의 선입견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안면의 주름 하나, 점 하나마저 정치하게 그려내는 극사실적 묘사에 비해 인물의 의상이나 배경은 비교적 넉넉한 담묵이나 선염으로 처리함으로 인해 화면전체에 사의적인 격조가 배여들어 있다.

<김길상 상> <우영철 상> <김경곤 상>처럼 외관을 갖추고 반신상이나 전신상으로 정면을 응시하면서 다소 굳어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전통양식의 초상화에서는 인물의 안색, 눈동자, 주름살에서 전신의 소재가 파악되는 반면 자유로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송수남 상> <서정주 상> <윤봉길 상> <유종근 상>에서는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안면과 배경 혹은 주제와 환경 간에 있어서 적절한 조형적 관계 설정으로 인물의 전신 효과가 살아나고 있다. 특히 화면을 온화하게 감싸고 있는 주위의 다양한 수묵형상들은 인물의 내면적 정체성과 작품의 주제를 한층 강화시켜 주고 있다.

이처럼 기법이나 주제 면에서 과거와 현재를 포괄하는 독창적인 인물화 양식을 일구어낸 작가의 조형능력은 분명 탁월한 기본기와 치밀한 관찰력, 묘사력, 재료와 기법의 연구, 방법론적 모색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일관되게 감지되는 치열한 장인정신과 농익은 필묵법으로 발아된 의경(意境)으로서의 그의 전시작들이 초상화에 대해 다소 경직되고 고정화된 일반적인 이해의 틀을 전환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공간이 보인다

예술과 삶이 어우러지는 곳

홍지문화공간

- 전북회화회 편집부 -

전주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문화공간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바로 홍지서림 지하에 있는 홍지문화공간.

지난 6월 개관한 홍지문화공간은 벌써 '작가와의 대화' '우리 시대의 문화 읽기' '영화마당' 등 여러 차례 시민들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였으며, 그림, 사진 등의 전시와 공연장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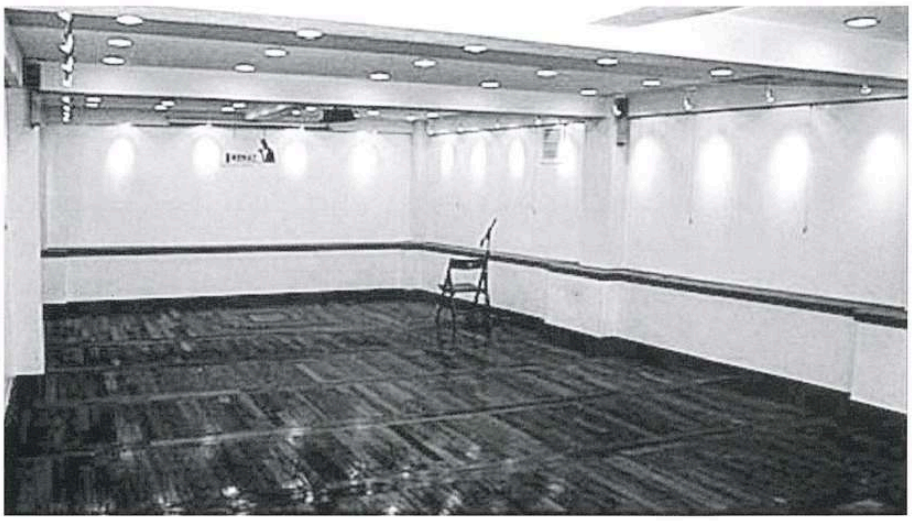
이 지역 출신이면서, 문학인들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로부터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설가 양귀자 씨가 홍지서림을 인수한 후, 자신의 문학적 정서의 토대가 되고 자양분이 돼 주었던 이 지역을 위해 마련한 공간인 것이다.

홍지문화공간은 현재 굵직굵직한 세 영역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격월로 셋째 주마다 '홍지작가와의 대화', '우리 시대의 문화읽기', 그리고 매주 수요일 7시면 '영화마당'이 펼쳐진다.

개관기념으로 열었던 첫 번째 작가와의 대화는 소설가 은희경 씨를 초청, 이벤트홀은 문학의 열정으로 가득 찼다. 그 후에도 '어머니'의 작가 김정현씨, '바이올렛'의 작가 신경숙 씨 등을 초청하여 작가와 독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 우리 시대의 문화를 읽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창동 감독의 '영화 이야기', 사회평론가 진중권 씨의 '죽음 앞의 인간', 출판인 김규항 씨의 'B급 좌파로 산다는 것은' 등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이며 이 시대의 모습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10월 11월에는 영화를 감상하고 토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매주 수요일의 이 영화마당은, <비포 선 라이즈> 라빠르망> 동정 없는 세상> 등 작품성이나 사회성이 있는 영화들을 중심으로 8회에 걸쳐 실시되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흐뭇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30여 평의 간결하고 아담한 공간은 작품 전시실로서 적절하다. 10월에는 '한국양명회 가을 회원전' '안학수 사진전', 11월에는 우리그림 창작회의 '그림마을전'이 있었다. 대관은 무료이며, 전시 기간 중 전기료 요금 정도만 책임지면 된다.

소규모의 강연이나 회의장소로도 안성맞춤이다. 회의장으로는 50~60여명, 강연으로는 70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해 주는 요인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바로 옆에 아담하고 깔끔한 <북 카페>가 있다는 것. 이 지역의 문인 몇 사람이 뜻을 모아 운영하는 이 카페는 지나가다 잠시 들러 쉬었다 가기에 안성맞춤이다. 엄선(?)된 책들이 책갈피마다에 사유를 간직한 채 벽에 기대어 있으니, 한번쯤 펼쳐봄직 하다. 아울러 술값도 쌀뿐더러, 혹 책만 통해서 알고 있던 문인과 조우하는 즐거움도 있을 것이다.

삭막한 도시를 배회할 때나 누군가 사람이 그리울 때 잠시 이곳에 들러, 그림을 보고, 차 한 잔 마시고, 자유롭게 예술과 인생을 생각해 보는 것도 썩 괜찮을 것 같다. 이벤트홀 프로그램이나 대관 등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사무실로 문의하면 썩 잘 생긴 남자 성기석 간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이다.

홍지문화공간 프로그램 및 대관안내 : (063)286-1871

지구를 색칠하는 페인트공

양 귀 자

우리동네에 페인트공이 한 사람 살고 있었다. 그는 아주 작고 가냘픈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이면 그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할 수 있는지 의아심을 품을 정도였다. 짧은 런닝셔츠를 걸치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의 윗몸은 얼굴과는 전혀 다른 억센 근육으로 탄탄하였다. 가냘프고 섬세한 얼굴이 미쳐 표현해 주지 못한, 그의 거친 삶이 온통 근육으로 뭉쳐져 있는 듯하였다.

그는 팔십 연도 초에 해외취업으로 중동에 자녀온 적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극히 검소하고 절약에 길들여져 있어서 언제나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페인트가 범벅이 된 모자를 눌러쓰고 원미동 거리를 조용조용 걸어다녔다.

그는 페인트뿐만이 아니라 건축에 관계되는 모든 내용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건축공학에서나 다룸직한 최신공법도 그의 머릿속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집에 하자가 발생할 때는 좋은 의논자가 되었다.

그가 건축공사의 페인트공으로 머무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동네의 주택 보수공사가 대개 그렇듯 보일러나 수도, 방수에 손을 대면서 페인트를 칠해도 될 터인데 그는 굳이 페인트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사람이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갈등을 삭힐 수 없어서였다.

갈등에 대하여, 그처럼 많은 시간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었다. 외벽의 누수방지를 위해 공사를 하고나면 그것의 완벽성이 입증되기까지 그는 고민하고 갈등하였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옥상의 방수공사를 맡게 되었을 때, 그는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고 일에 매달렸고 그 뒤 장마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한 달 동안 수없이 갈등하며 초조하게 공사 결과를 확인하였다.

보일러도 그런 까닭에 손대지 않았다. 방이 따뜻하지 않다거나 곁불이 새어 화덕만 망가지는 결과가 종종 있었으며 그럴 경우 그는 갈등을 뛰어넘는 자기 불안에 식욕을 잃을 지경이었다.

말하자면, 우리 동네의 그 페인트공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그는 대단히 철학적인 인식구조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가 손댄 모든 공사의 내용에 분석과 해석을 거듭하다가 모순에 빠져 회의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종류의 하자 보수공사에 오직 갈등만 익힌 그는 페인트공으로 스스로를 낙착짓고자 하였다. 페인트는, 초조롭게 결과를 기다릴 만큼 노골적인 하자는 없을 분야였다.

게다가 공사를 마쳤을 때 눈앞에 드러나는 신세계가 그는 좋았다. 배합과 착색, 섬세한 붓질, 이 모든 것이 그의 분석력에 걸맞는 듯 싶기도 하였다. 그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기도 해서 때때로 배색의 과정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였지만 그 정도야 참을 만하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양귀자 (소설가)
1955년 전주에서 태어나 원광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1978년 「문학사상」 신인상을 수상하여 문단에 나온 후, 『귀머거리 새』 『원미동 사람들』 『희망』 『모순』 등 많은 책을 출간하였다. '유주현 문학상' '이상 문학상' 등을 수상하였다.

그는 가끔씩 문방구에서 한 묶음의 백지를 사가기도 하는 사람이었다. 뭐할 거냐고 물으면 낯을 붉히면서 그냥, 이라고 우물쭈물 대답하였다. 그는 백지 위에 아마도 자기가 원하는 색의 배합 비율을 적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는 '양심의 편차' 라든가 '인간의 내부구조' 등의 말을 간혹 사용하였고 '사는 것은 백팔번뇌' 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 그의 말대로 하면 고민 없는 삶이 없고 한 가지 갈등이 스러지면 이어 다른 갈등이 생겨나는 법이었다.

그의 집은 원래 아주 오래된 기와집이었다. 이 동네의 토박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오랜 세월 그는 그 기와집에서 독실한 불교도인 노모와 함께 살았다. 그리고 그 기와집의 윗방에서 신혼살림도 차렸고 그의 아내는 아들만 둘을 그에게 안겨주었다. 그의 아내는 때때로 페인트를 칠하는 남편 옆에서 붓을 빨아주기도 하고 새 깡통을 갖다주기도 하였다. 그의 아들들은 아주 개구쟁이여서 갈등과 회의로 범벅을 이룬 아비된 자의 얼굴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 페인트공은 얼마 전부터 동네일에서 손을 떼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의 헌집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반듯한 이층집을 짓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신축공사는 거의 두 달 이상 걸렸다. 그는 완전히 시멘트 범벅이 되어 공사장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새집을 지으면서 그의 얼굴은 나날이 초췌해 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거의 병자처럼 가냘퍼졌고, 담장에 기대어 쉬는 때가 잦았다.

집짓기가 원래 고단한 일 아니냐고, 누군가가 위로하면 그는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었다. 건축일에 해박하니 자기 집을 지을 때 얼마나 유용하게 스스로를 바치겠는가, 이 집이야말로 완벽한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는 서글프게 웃었다.

"말도 마세요. 하나에서 열까지 갈등, 갈등 그 자체예요."

그는 실제 모든 일꾼을 사서 부렸고 그 자신은 보조역할만 맡고 있을 뿐인데도 그러했다. 어쨌거나 새집은 나날이 꼴이 갖추어졌고 동네사람들은 이층집의 주인이 된 페인트공의 절약정신을 치하하였다.

그리고 어느날, 다 완성된 집에 페인트칠이 시작되었다. 대문과 난간, 기와를 얹은 옥상, 외벽 등에 일꾼들이 매달려 분주하게 일을 하였다. 그 사람들 중에 페인트공이 집주인은 없었다. 그는 오히려 작업복도 입지 않은 채 동네 골목길에 무심하게 서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페인트가 전문이면서 왜 남들에게 맡기세요?"

페인트공은 쑥스럽게 웃으며 자신의 집을 쳐다보았다.

"직접 하시면 더욱 꼼꼼하게 칠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나는 끈질기게 질문을 되풀이하였다. 그가 마지못한 듯 겨우 입을 열었다.

"난 저 집에서 최소한 삼십 년을 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는 오히려 나에게 반문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리둥절하였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직접 하셔야지요. 새집에서의 첫 번째 칠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욱 그렇지요."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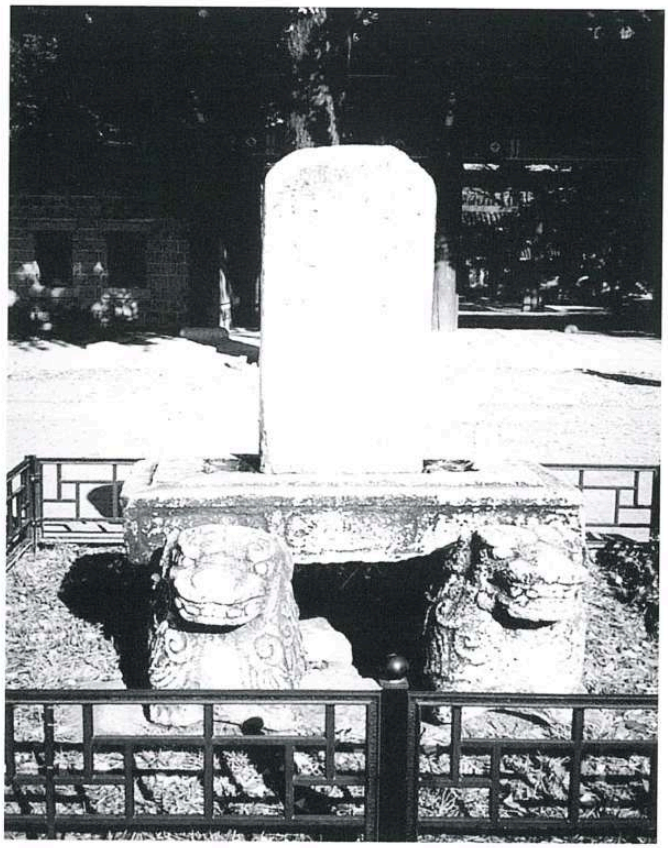
내가 계속 말귀를 못 알아듣자 그는 답답한 듯 외쳤다.

"삼십 년짜리라구요. 아시겠어요? 삼십 년 짜리 갈등을 왜 떠맡아요?"

이 동 희

경기전의 하마비와 거북이

이동희
예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경기전 하마비

전주는 태조 이성계의 본향으로 그 선대들이 살았던 조선왕조의 발상지, 즉 풍패지향(豊沛之鄕)이다. 그러기에 조선은 건국직후 전주에 태조 어진(영정)을 모시고, 그 건물(眞殿)을 새왕조가 일어난 경사스런 터라는 뜻으로「경기전(慶基殿)」이라 이름하였다.

경기전에는 어진을 모신 진전과 함께, 그 동편 담 너무『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전주 사고가 있으며, 뒤편으로 전주이씨의 시조 이한(李翰)과 시조비 경주김씨 위패를 봉안한 조경묘가 있다. 조경묘에는 조그마한 재실이 딸려 있는데, 이 재실이 조선의 마지막 황녀 이문용 여사가 빨갱이로 몰려 10여년의 옥고를 치른 후 말년을 보낸 곳이다. 경기전 동편 뜰에는 구이에서 옮겨온 예종대왕태실이 있다.

이처럼 경기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들이 그득하다. 하지만 경기전에 이같이 널리 알려진 명품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문화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숨겨진 것들이 있다. 경기전 입구의 하마비와 진전의 거북이가 그런 것들이다.

경기전 하마비는 정문 밖, 도로가에 있다.(조경묘에는 이와 다른 하마비가 있음) 많은 사람들이 경기전을 찾지만, 대부분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바로 정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마비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필자부터도 답사 안내를 하느라 경기전을 여러번 드나들었지만, 하마비를 세심히 살펴본 것은 얼마전이다.

이 하마비가 건립된 해는 왜란 때 소실된 경기전이 중건된 1614년(광해군 6)이다. 이후 1856년(철종 7)에 중각(重刻)되었다. 비석에는 두 줄로 "지차개하마 잡인무득입(至此皆下馬雜人毋得入)"라고 새겨져 있다. 이곳에 이르는 자는 계급의 높고 낮음, 신분의 귀천을 떠나 모두 말에서 내리고, 잡인들은 출입을 금한다는 뜻이다. 경기전이 조선왕조의 상징인 태조어진을 봉안한 곳이고, 그래서 근처에 있던 향교까지도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시끄럽다하여 화산으로 옮긴 것으로 보아 이 하마비, 수문장의 위력은 대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여느 하마비와 다르게 경기전 하마비는 받침돌이 특이하다. 판석 위에 비를 올리고, 그 판석을 두 마리의 사자가 등으로 받치고 있다. 사자는 맹수의 왕이어서, 불교에서 불법(佛法)의 수호자로 받들어지는 것처럼, 경기전의 수호신으로 누구라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두 마리 사자의 모습이 다르다. 왼쪽 사자(우리가 바로보아서 오른쪽)는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것에 비해, 그 옆의 우측 사자는 입을 다물고 있다. 마치 불교에서 금강역사의 형상과 유사하다. 입을 벌리고 있는 「아금강」과 입을 다물고 있는 「음금강」은 곧 공격과 수비요, 양과 음이요, 따라서 하나의 완성이다. 그렇다 하면 하마비 두 마리 사자의 서로 다른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간다. 입을 벌리고 있는 사자는 수놈이고, 입을 다물고 있는 사자는 암놈이다.

발톱의 모양도 다르다. 입을 벌리고 있는 공격형의 수놈 사자는 발톱을 세우고 있고, 입을 다문 수비형의 암놈 사자는 안으로 오므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엉덩이의 크기는 암놈 사자가 수놈 사자보다 훨씬 더 크다. 머리크기와 몸의 덩치는 엉덩이와 반대로, 수놈 사자가 더 크다. 눈매도 수놈 사자가 부리부리하니 공격적이다.

결국 맹수의 왕, 암수 사자 한 쌍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면서 경기전을 지키는 상이다. 이것이 시대를 관통하여 우리문화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사상이며, 우리 전통문화의 특질이다.

음양오행사상은 음 · 양 2기와, 수 · 화 · 목 · 금 · 토 5행으로 우주의 생성, 변천, 소멸원리를 풀이한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음양의 조화와 오행의 작용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을 지키는 장승을 세우더라도 음과 양 한 쌍을 세우고, 북을 만들더라도 한쪽은 암소가죽, 다른 한쪽은 수소가죽으로 한다. 지형상 음기가 강한 곳에 남근석을 세우는 것도 그런 이치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음양의 조화를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됨을 추구했던 것이다.

서울의 남대문 「숭례문(崇禮門)」이라 한 것도, 오행설에 의거 남쪽이 「예(禮)」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동쪽은 「인(仁)」이어서 동대문을 「흥인지문(興仁之門)」이라 하였다. 전주의 남문 풍남문의 이전 이름은 명견루(明見樓)였는데 이 또한 오행설과 관련되어 있다. 남쪽은 곧 「밝음(明)」이기 때문이다. 임금이 남향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궁궐에 있어서, 세자를 동궁이라 하고, 그 거처가 궁의 동쪽에 있는 것 또한 임금은 동쪽에서 나온다는 오행설에 근거한 것이다. 음양오행설에 의하면, 좌측이 양이고, 우측이 음이다.

이런 음양의 법칙이 화엄사 각황전 뒤편의 4사자 석탑에서처럼, 경기전의 하마비에도 반영되어 있다. 사람들의 관심 밖이던 하마비에 이같은 우리문화의 특성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경기전의 감춰진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진전에 붙어 있는 거북이들이다. 경기전 안으로 들어가면 태조어진을 모셔놓은 진전이 있는데, 그 중앙에 「丁」자 형의 돌출된 배향공간이 있다. 진전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돌출된 지붕측면 널판지가 정면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나무로 된 조각품이 붙어 있다. 형상으로 보아 틀림없는 한 쌍의 거북이다. 한 마리는 목이 잘려나갔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 목이 온전하게 남아있다. 거북은 잘 알다시피 수명장수를 상징한다. 그래서 비석받침들도 거북이 형이다. 물론 불교에서 거북은 용궁 즉 부처의 세계내지 그곳으로 안내하는 인도자이기도 하다.



경기전 진전 전경



진전 거북이

어느 목공(木工)인가 경기전을 완성하고 그 영원함을 위해 지붕에 암수 두 마리의 거북이를 올려놓았던 것이다. 거북이가 물에서 살고, 진전이 목조건축인 점에서 특히 화재막이용 거북이일 가능성이 크다. 음양의 조화를 이루면서 화마를 피해 진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염원의 발현인 셈이다.

우리 문화는 얼른 보아 아무 것도 아닌 것 같고, 겉보기에 별다르지 않더라도, 자세히 뜯어보면 그 안에 뭔가 의미가 담겨 있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따라서 우리 문화유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문화는 육안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육안(肉眼)과 함께 심안(心眼)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다. 하마비와 거북이는 우리문화의 이런 특질을 간직하고 있는 경기전의 또 다른 매력이다.

한국화 감상을 위한 一助

이승훈

한국화 감상은 대개 3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 현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근대의 시기는 19세기 중엽에서 일제 강점기로 보고, 현대는 새마을 운동이 일어난 1960년대 후반으로 대략 나누어 본다면 감상의 기본이 설 수 있다. 이 3시기는 개인적으로 나눈 것이고 어떤 학설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선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공모전의 양상과 의식의 흐름이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설정한 것이다.

19세기 중엽에서는 중세 봉건적인 것들이 위기를 맞이했고 자본주의적인 것들이 발달해 나가고 있었다. 정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철학과 문화 또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19세기 중엽 화단을 휩쓴 신감각파 화가들은 모두 1820에서 1830년대에 태어나 서울에서 활동한 세대들이다. 그들의 도전과 모색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변화를 들어 근대 미술의 기점으로 보는 것이다. 게다가 이 무렵엔 미술가들을 포함한 중인 예인들의 전기인 조희룡의 [호산외사]를 비롯해 유재건의 [이향견문록]과 화가의 자서전이랄 수 있는 조희룡의 [석우망년록], 허련의 [소치실록]이 나왔다. 또한 당대를 주름잡던 중인 화가들이 벽오사(碧梧社)와 직하시사(稷下詩社) 그리고 육교시사(六橋詩社)를 조직해 활동하였다. 이 무렵 거장들은 일찍이 습득한 수묵 채색화를 시대의 요구에 알맞게 변화 발전시켜 나갔다. 신감각주의 경향을 밀고 나간 19세기 화가들이 경쾌한 도시감각을 바탕에 깔고 자신의 분방한 개성을 표현하면서 내면의 갈등을 대담하게 드러냈던 것은 수묵 채색화의 기본 원리를 자신의 시대에 알맞게 혁신해 나간 결과이다.

근대 이전의 회화는 감상 작품이 우상에서 좌하로 흘러가게 감상된다는 점이고 근대 이후로는 좌상에서 우하로 감상을 한다는 점이다. 회화의 시점도 1점투시도와 같은 서양식 기법과 혼재하여 나타난다. 현대로 오면 전통의 시방식은 현대서양화에서 나타나는 많은 유파가 나타난다. 재료도 혼합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고 시점이 없이 나타나며 역 전통적인 면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근대의 회화는 쉽게 접하기 힘들다. 다만 오세창(吳世昌, 1864~1953년), 전형필(全鎣弼, 1906~1962년)선생 같은 수집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감상의 기회가 있게 되었다. 이를테면 간송 미술관(澗松美術館)이나 호암 미술관(湖巖美術館) 그리고 에밀레 미술관이 모은 그림들이 그것이다. 거기에 총독부 박물관 소장품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어서 감상자들이 제법 근대 수묵 채색화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여러가지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고 특히 대학박물관에서도 중요한 근대 그림들이 있어 감상의 기회를 마련하곤 한다. 그러나 여전히 국립 근대미술관 또는 국립 근대미술박물관이 없어 흩어져 있는 근대 그림들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우리 옛그림과 근대 회화로서의 한국화, 현대 한국화를 같은 맥락에서 감상한다는 것은 큰 오류에 범하기 쉽다. 서양화도 그렇다. 중세 그림과 서양 근대(19C) 이전 그림, 근대 이후의 그림을 감상할 때, 오늘날 현대 회화를 보는 눈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그림을 읽듯이 보아야 하는 그림이 있고 현대 그림처럼 보아야 되는 현저한 차이점이 있다.

다만 한국화와 서양화의 현저한 차이를 모색해 볼 만한 점들을 살펴보면서 감상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한국화의 여백, 한국화의 시점, 한국화의 재료, 한국화의 내용, 한국화의 필묵 등을 통해 이해를 하여보고자 한다.

■ 한국화의 여백

한국화는 그려지지 않는 곳이 있다. 이 빈곳이 여백이라는 것인데, 그려진 형상보다도 중요시 여기는 곳이다.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을 쓴 오주석의 글에 의하면 김홍도의 주상관매도가 대표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고 했다. "화폭은 어른의 키만큼이나 커다란데 거기에 그려진 景物은 화면의 1/5도 채 되지가 않는다. 뿌옇게 떠오르는 끝없는 빈 공간, 그 한 중간에 가파른 절벽 위로 몇 그루 꽃나무가 안개 속에 슬쩍 얼비친다. 화면 왼쪽 아래 구석에는 이편 산자락의 끄트머리가 꼬리를 드리웠는데 그 뒤로 잠시 멈춘 조각배 안에는 조촐한 주안상을 앞에 하고 비스듬히 몸을 젖혀 꽃을 치켜다보는 노인과 다소곳이 옹송그린 뱃사공이 보인다.", "여백이 하도 넓다 보니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인지 가늠을 할 수 없다. 그렇다. 김홍도가 시조에서 읊었듯이 '물 아래가 하늘이고 하늘 위가 물인가' 보다. 또 '봄 물에 배를 띄워 가는 대로 놓았으니' 잎새 같은 조각배는 둥실둥실 흔들리며 기운 없는 노인에게 가벼운 어지럼증을 가져다주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그렇지 않아도 어두운 '늙은 눈에 보이는 저 꽃나무는 아슴프레하니 안개 속에 잠겨 있는 듯하다.' 그림은 시조 그대로이고 시조는 그림을 꼭 빼닮았다. [주상관매도]에서는 그려진 경물보다 에워싼 여백이 전면에 부각된다. 그 보일 듯 말 듯한 느낌은 마치 지금은 들리지 않는 노년의 단원 김홍도. 그분이 소리하는 가녀린 시조창인 듯하다.

景物과 여백이 서로에게 안기고 스며드는 이 작품의 시적인 공간감가은 김홍도의 노년기 산수화에 엿보이는 특징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저 언덕의 풍경은 실제의 모습일까? 그렇지 않다. 언덕과 꽃나무는 우리가 바라본 것도, 맞은편에 앉은 뱃사공이 바라본 것도 아니다. 바로 그림 속의 주인공, 주황빛 도포를 걸친 노인의 늙은 눈에 얼비친 풍경이다. 이를테면 그것은 그림 속의 노인이 바라보는 풍경이 그대로 화폭 위로 떠오른 것이다. 참으로 오묘한 우리 옛 그림의 맛이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저 언덕 위를 치켜다보고 있다. 그러니 아래쪽은 저절로 뿌예질 수밖에 없다. 작가 김홍도는 완전히 저 노인과 한마음이다. 그러므로 화가의 시선 또한 작품의 하변 바닥까지 내려와서 노인이 타고 있는 배를 아래쪽에서 올려다본 것처럼 그리고 있다." 묘사되어 있는 부분과 여백의 전체 관계는 새로운 정신의 눈을 통해 체험되어야만 되고, 그 다음은 주어져 있는 묘사된 부분을 균형 있게 보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백(餘白)은 의미가 분명 존재하는 하나의 조형(造形)적 언어로 보고 무한으로부터 묘사되어진 부분을 더욱 만족시키고 암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아름다움인 것이다.

이렇게 여백은 하늘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다. 대상의 가장 본질적인 주제의 사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만을 취하고 없어도 무방한 주제와 관계없는 부분을 모두 화면에서 제거시켜버리기 때문에 여백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여백은 화면의 주제를 돋보이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화면의 의경, 즉 이른바 형상의 연속을 확대시킨다.

■ 한국화의 시점

조선 초기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가로로 길게 그려진 그림이다. 이 그림은 한 화면 속에 다양한 시각이 어우러져 완성된 작품이다. 하나의 소실점에 시각을 집중시켜 그 길이나 깊이의 변화를 일정하게 함으로써 평면을 입체적인 공간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서양적 원근법과는 다른 시방식으로 그려진 것이다. 고원법, 평원법, 심원법이 혼재되어 나타난 삼원법이라는 것이다. 깎아 세운 절벽은 아래쪽에서 쳐다보는 느낌을 주고, 넓은 평원은 자신이 그림 속의 높은 곳에 올라서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작품 속에 작품 감상자가 들어가서 보는 느낌이 난다. 실제 산에 들어가서 바람소리, 계곡의 물소리, 바위의 묵직한 명상소리를 듣는 듯하다. 17세기 홉베마의 미텔하르니스의 마을길처럼 일점투시도법으로 그려서 과학적 원근법이라고 으스대고 작품을 사려보면 멀리보이는 교회의 종과 마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사진기로 촬영한 하나의 사진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화의 역원근법(逆遠近法)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역원근법은 뒤쪽의 사물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앞쪽의 산뿐만 아니라 첩첩이 쌓인 산과 계곡, 그 사이의 바위까지도 묘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인식한 실제의 풍경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

■ 한국화의 재료

한국화의 재료는 수묵과 채색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서양화와는 대조적으로 수성에 의하여 전개되고 있다. 기본적인 도구가 모필이기에 그 특수성이 있다.

수묵과 모필, 한지가 대표적인 재료인데 종이는 부드럽고 유연하며 번지는 습성이 있다. 수성은 성격상 수동적이다. 종이에 스미는 수묵의 농담효과는 은은한 내면의 깊이 까지도 표현되며 밖으로 표출되는 강렬함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전반적으로 정적이며 평면성이고 명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은 일차적으로 재료성에 기인한다.

모필의 필력은 직관적이고 일회적이다. 덧칠하고 긁어내며 오랜 시간 수정해 가는 서양화와는 다르다. 일회적이다는 것은 수정을 가할 수 없고 숙련된 피력을 갖추어야 하며 사물과 내용을 함축하여 완성한다. 서양의 화화가 사실성을 갖는다면 보다 寫的인 것이다. 제스퍼 존스의 지도(1961, 뉴욕근대미술관 소장)나 안젤름 키퍼의 홍해(1984~84, 뉴욕근대미술관 소장)는 더욱 일회성으로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보편성인 것은 아니다.

■ 한국화의 내용

내용 면에서 산수나 화조 등 주로 자연을 소재로 한다. 산수화는 관념산수와 실경산수로 나뉘고 있다. 관념산수의 경우엔 그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하고, 실경 산수화도 서양의 풍경화를 보듯이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산수의 원형 속엔 자연회귀란 동양인의 유토피아적인 관념이 살아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국토를 사랑하고 이상향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새로운 모색이 있어야 한다. 산수를 단순히 풍경의 대체개념으로 감상하고 표현해서는 안될 것이다.

Peter Swann은 정선의 금강산도와 김홍도의 頂, 이인문의 강산무진도 등에서 중국화풍을 받았으나 도처에 독자적인 청아한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했다. 한국인은 심지어 중국인보다도 想的인 풍경을 더 잘 구사한다고 했다. 이는 떼느가 지적한 서양남구의 그리스인들이 선을 주조로 삼아 중요한 특색만을 표현하는 경향과도 같이 한국인은 조형미 구성에 있어 사실에서 떠나 "의식적인 과장"과 "환상적인 표현"을 즐겼다는 것이다. 자연환경의 요인에 따라 조형미도 다르다는 관점인데 떼느가 말한 한국의 자연은 유럽 남구와 같다는 점이다. 맑은 공기와 강렬한 태양의 자연에서 한국미술은 자연의 세부를 묘사하느니보다 형을 단순화하고 이상화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말이다. 중국화도 북송의 산수화가 묵의 농담으로써 자연의 모습과 대기의 변화를 섬세히 그려내는데 반하여 남송의 산수화는 대상의 형태를 정밀하게 그리지 않고, 화가의 심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예술철학, 조요한, 경문사 1980)

서구인들은 동양적 한국적 사고와 양식으로 자기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창작세계를 원한다. 국제무대로의 진출은 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고유성이 있어야 구현될 것이다. (유홍준, 정직한 관객, 학고재 1996) 이제 어리석은 행위의 위험한 미학에 빠져서는 안 된다. 쉽게 미술가로서 영화를 누리려다가 백년대계를 그르칠 것이다. 한국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회화를 만나기 바라마지 않는다. 그 점을 잘 읽어내야 한다.

■ 한국화의 필묵

필묵은 필법과 묵법을 포괄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필법은 대상이 되는 사물의 형태와 구조를 표현하는 것이다. 묵법은 이러한 대상의 농담과 허실, 심지어는 양감까지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필법과 묵법은 서로 혼용되어 작용한다. 필묵에 의해서 사물의 형태와 질감, 동세 등이 표현되어진다. 문인화와 화조화 등을 보면 거칠고 섬세하며, 진하고 연하며, 부드럽고 강한 여러 가지 다른 필법을 교묘히 사용하여 기운생동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필법은 사실상 선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서예의 필법과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다. 서예의 點(점), 劃(획), 별, 捺(날), 長短(장단), 曲直(곡직), 剛柔(강유), 虛實(허실) 등이 일치된다. 중봉과 측봉을 사용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

묵법은 필과 떨어져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묵은 필로 표현된다. 묵은 색채의 기법으로도 받아들이고 있다. 五墨(오묵)과 六彩(육채)가 그것이다. 농담에는 焦(초), 濃(농), 重(중), 淡(담), 淸(청)의 다섯 가지이다. 육채는 묵색의 변화를 말한다. 흑백, 건습, 농담 등이다. 그리고 칠묵법이 있다. 濃墨(농묵)법, 淡墨(담묵)법, 破墨(파묵)법, 潑墨(발묵)법, 積墨(적묵)법, 焦墨(초묵)법, 宿墨(숙묵)법 등이 그것이다.

사실 수묵화에서 물은 중요하다. 먹색이 습윤하고 생기가 있느냐, 혹은 죽어 말라붙은 것 같은가. 혹은 힘이 있거나 유약한가 등은 물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위와 같이 한국화의 여백, 한국화의 시점, 한국화의 재료, 한국화의 내용, 한국화의 필묵 등을 통해 감상사자 어떤 생각으로 한국화를 이해할 것인가 약술해 보았다. 이외에도 그림과 문학, 역사, 시대상황, 개인적 취미와 작가의 정신을 되짚어 보면서 감상을 한다면 격이 있는 작품 감상이 될 것으로 본다.

전등사와 선운사의 여인상

이 승 훈 (대성중학교 교사)

지난 여름 휴가 차 우리 가족은 강화도 전등사에 가게 되었다. 가뭄에 폭서가 우리를 진땀나게 하고 있었다. 퍽퍽 발길을 막는 시내를 벗어나 전등사 초입에 이르자 좁은 골목길 끝에 나오는 산문 하나가 있었다. 정족산성의 문이다. 남루한 문에 들어서니 시원한 나무숲이 우리를 반겨 주었다. 오솔길은 가꾸지 않고 버려 둔 곳 같다. 비록 가꾸지 않은 길이라 해도 뜨거운 여름날 탓에 신경이 가지 않는다. 시원한 길이면 만족한 것이다.

유명한 시인 고은도 한때 여기서 수행했다한다. 전등사에 들어서자 아늑한 뜰에 빛깔이 퇴색한 채로 법당이 서있다. 보물 제178호인 대웅전은 다른 절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이다. 추녀를 받친 네 기둥 위의 여인상은 대웅전을 세울 때의 일화를 갖고 탄생한 여인상이다.



조선 광해군(1621) 때 복원공사를 맡은 도편수와 절 아랫마을 주모와의 사랑이야기가 담긴 여인상이다. 도편수는 공사가 끝나면 함께 살림을 차리자고 주모와 언약을 했고 공사중 품값을 받아서 사랑하는 주모에게 바쳤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는 전날에 주모는 밤도망을 한 것이다. 도편수는 그 여인을 사랑하던 정열 때문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고 미움이 복받쳐 저주의 상을 만들어 추녀를 받치고 있게 하였다. 그래서 평생 머리와 두 팔로 쪼그리고 앉아 무거운 추녀를 받치고 있다. 하얀 이를 보이며 웃고 있는 모습이다. 가슴과 몸에는 법륜의 끈 조각 매듭을 가리게 하여 만든 나체 여인상이다. 그의 눈은 힘들고 맘 고생까지 한 사팔뜨기이다.

어느 분의 글에는 '종교적인 승화'로 볼 수 있게 하였다. 저주상이 아니라 오히려 참회하고 다시 중생의 모습으로 돌아간 여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절 완공식 전날 찾아간 주막은 흔적도 없으며 귀신에 홀린 기분이다. 빈터에 항아리만 하나 남았고, 그 속에 그 동안 주막을 내어 모아 놓은 돈이 모두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도편수가 절색의 미인 주모에게 넋을 잃은 건 사실이고 그에게 절이 완성 되어가는 과정을 세세히 말했을 것이며 외로운 산 속에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정진해서 절을 완성해 갔는지 모른다. 어쩌면 관음보살의 화신인 것이다. 그래서 밤마다 부처와 함께 한 것을 모르는 무지함에 부끄러워하며 '참회의 여인상'으로 승화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오욕칠정에 맞물려 살아가는 우리네 사람들이 흔히 겪는 이야기가 서려 있는 것이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고장의 여인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전북 고창 선운사에 가면 천왕문이 있다. 천왕문에는 사천왕에게 잡혀 있는 여인상을 볼 수 있다. 이 음녀라는 여인상은 광목천왕상의 오른쪽 무릎에 깔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불가에서 서쪽의 음탕한 기운을 막는 광목천왕은 무서운 큰 눈으로 사악함을 몰아 낸다고 한다. 그래서 악을 물리치는 안악이라 하고 광목이라고도 한다.

고통을 주면서 스스로 깨달음을 느끼게 한다고 하나 이 여인상은 오히려 음탕한 눈빛을 보내면서 추태를 보내고 있다. 참회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나를 바라보는 너 또한 나의 치마폭에 싸이게 될 걸"하고 윙크하면서 음탕한 웃음을 흘리고 있다.

강화도의 대웅전 여인상은 비련이 낳은 여인의 모습이고, 고창 선운사 천왕문의 여인상은 비도덕성이 낳은 여인상이다. 그래서 전등사의 여인상이 천왕문에 잡혀 있지 않은 가 보다.

우리 일행은 식당으로 발길을 옮겨 식사를 하였다. 밴댕이 회 무침을 유별나게 맛있게 먹었다. 여인상의 기억이 가라앉으면서 여름날 별미가 새록새록 생각난다.

읽을만한 책



▶폴 고갱(재원미술작가론 11)

박덕흠 / 재원 / 12,000원

35세에 미술을 시작해 55세로 막을 내린 고갱의 전투를 하듯이 치열하게 살아간 삶을 담은 책. 고귀한 야만인, 서구 문명의 이단아로 불린 화가, 인상주의를 딛고 상징주의의 문을 열었으며, 그가 뿌린 씨앗은 야수파와 피카소 미술의 모태가 되었다. 화가 고갱의 생애와 미술 작품의 세계를 원색의 작품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서술....



▶이순의 사색(조각가 최종태의 삶과 미술 이야기)

편집부 / 미술사랑 / 10,000원

조각가 최종태 선생의 정기간행물에 연재한 15편의 에세이를 모아 정리한 책. 세계 여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박물관, 미술관들을 감상하고 그 기쁨과 감동을 표현했다. 화가 자신은 물론이고 보는 이들 모두에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예술이 인간의 삶에 기여하는 풍요로움을 보편적이고 고전적으로 솔직하게 기록했다.



▶정겨운시절 이야기(1)(2) 이서지 풍속화집

이서지 / 고용나무글방 / 6,000원

누 천년을 이어 오면서 곰삭아 자리잡은 우리의 생활 양식을 담은 풍속화집. 기뻤던 일, 화났던 일, 슬펐던 일, 흥겨웠던 일들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리운 추억이 된다. 텅, 텅 익은 수박이 내는 소리도 내는 우리의 기억 속에 긴 여운으로 남아 있는 깔끔한 추억이 담긴 풍속화를 수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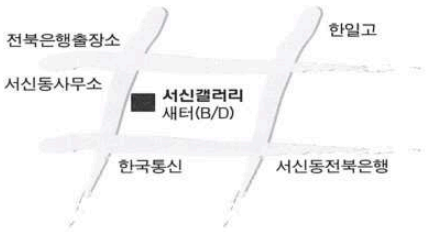


▶디자인 문화비평 5(디자인과 정체성)

디자인문화실험실 / 안그라픽스 / 20,000원

디자인 문화 비평 5번째 시리즈. 최근 유전공학의 성과에 힘입어 한, 일 그래픽 디자이너의 작품 세계에 담겨진 내적 논리와 유전자의 특징을 규정한 김민수의 〈한 · 일 그래픽 디자이너 게놈 분석〉을 비롯해 구체적으로 한국패션 정체성의 딜...

전북지역 화랑가 안내



서신갤러리

· 주소: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32-2 새터B/D B1 ☎(063)255-1653
· 전시면적:본 전시장(약 40평)/아트샵(약 12평)
· 대관료:유료대관-1일 10만원(상시접수)
무료대관:포트폴리오 심사(매년 12월 중순까지 접수)
초대전-년6회
기획전-상 · 하반기 2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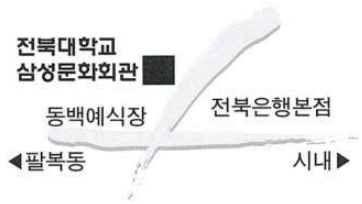
한마음갤러리

· 주소: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48-9 ☎(063)220-1200(원장실)
· 전시면적:7층 전시실 13평에 병원 전체에 전시가능(복도)
· 대관료: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소정의 작품을 감사의 표시로
증정할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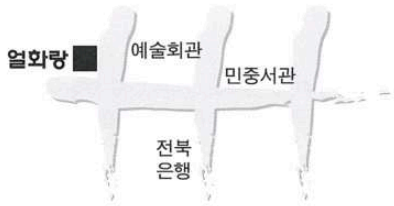
전북예술회관

· 주소: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2가 104-5
☎(063)284-4445, 286-2679 FAX:(063)286-2678
· 전시면적:1층 1실(96평) · 2실(57평)
2층 1실(66평) · 2실(47평) · 3실(47평) · 4실(33평)
· 대관료:평당 500원



삼성문화회관

· 주소: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1층 : ☎(063)270-2241 2층 : 270-2459 ARS안내 : 252-9400
· 전시면적:1층, 2층 각 100평
· 대관료:1일 기준 대관료 10만원, 수도료 3만원, 전기료 7만원,
냉난방기 9만원



얼화랑

· 주소:전주시 완산구 전동 2가 138-3
☎(063)285-0323
· 전시면적:총 43평
· 대관료:1주 80만원

전북지역 화랑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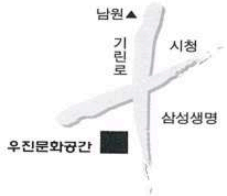
민촌 Art센타

· 주소: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546-51
☎(063)275-0695 FAX:252-5878
· 전시면적:100평/25평
· 대관료:1일 20만원/10만원
· 부대시설:찻집, 민촌가든, 주차장 150대-무료, 잔디밭 100여평(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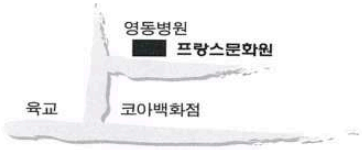
전주대학교 화랑

· 주소: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전주대학교 예체능대학 미술학과내
☎(063)220-2732(미술학과 사무실)
· 전시면적:80평
· 대관료:1일 20,000원, 전시기간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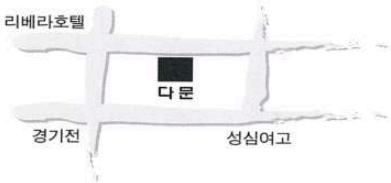
우진문화공간

· 주소: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21 ☎(063)282-7227
· 전시면적:40평
· 대관료:1일 20,000 1주 100,000



프랑스문화원

· 주소:전북 전주시 서노송동 685-44 고려상호금고 4층
☎(063)286-8114
· 전시실:1개 강의실:3개 카페테리아



다문 전시공간

· 주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2가 82
☎(063)288-8607
· 전시면적:15평
· 대관료:무료



경원아트홀

· 주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34-3 ☎(063)286-0345
· 전시면적:30평
· 대관료:10일 70만원

배기병
서진숙
안순금
엄기석
이승훈
이우정
이진숙
이철규
이환배
정미현
최병남



편집후기

11월의 전주 거리는 은행나무 노란 잎사귀로 가득하다. 사뭇히 밟고 거니는 맛이 사뭇 다르다. 웃깃을 여미고 한 걸음 한 걸음 거닐 때마다 옥고를 보내준 김지윤님과 이동희 교수님, 회원제위의 고마움을 느낍니다.

전북회화가 12개성상 동안 성장하면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제0호 회화지를 엮게된 것에 자축하려 합니다.

더없는 내용으로 제10호를 기약하면서 철새들의 긴 여로를 바라봅니다. 철새가 긴 여정을 날아서 새로운 삶터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고생으로 비축한 지방성분 덕분이라고 합니다. 미래엔 도약된 모습이 되길 기원하면서 보습을 열심히 닦아봅시다.

· 발행 · 편집인 / 서진숙
· 편집위원/이환배, 이승훈
· 전북회화집 2001년 통권 제9호
· 발행일/2001. 11. 17
· 대표연락처 [redacted]
· 기획 · 제작인쇄천국 ID63]224-97[redacted]



2001. 전북회화회 정기총회

–일시 : 2001. 12. 8

–장소 : 민촌

2002년 전북회화회 활동계획

1월 2001년 활동 반성 및 보고, 회계결산

신입회원 추천 및 심의

2002년 회장 선출

2월 동계세미나 및 특강

신입회원 환영회

전북 회화

2001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이 책자는 문예진흥
기금에서 지원 받았음